

내 아이의 이갈이 : 화난거 아니야~!

김 지 훈 / 아이조아치과

20년 넘게 치과 진료를 하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가 ‘이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SIDEX에 오신 많은 분들도 해당 질문을 접하실 때마다 분명 오랫동안 관련 문제를 알고 있고 접해 왔지만, 뚜렷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학에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소아치과 강의를 하고, 교과서 집필을 고민하며 관련 문헌들을 많이 읽어왔지만 아직까지 ‘이갈이(Bruxism, odontoprisis 軋齒症)’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해결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이갈이’와 ‘성인의 이갈이’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고 대응방법도 같지 않습니다. 특히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과 함께, 더욱 소중해진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요즘, 내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이갈이’는 많은 보호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SNS와 인터넷에 콘텐츠로 가공되어 올라오는 수많은 ‘이갈이’ 관련 영상들에서 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볼 수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이갈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과,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들, 보호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갈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학원을 다 빼야할까요?”, “잠잘 때 말고도 낮에도 가끔 이를 가는데, 이제 돌 지난 우리 아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건 아니겠죠?” 육아고민에 더해 ‘이갈이’에 대한 근심과 불안으로 궁금해하는 보호자분들에게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소아청소년 치과학 석사, 박사
-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소아치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치과 과장 및 주임교수
- *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UAB), Visiting Scholar, AL, USA
- * 대한소아치과학회 이사, AAPD, EAPD, IAPD, PDAA 정회원 및 국제회원
- * 현, 아이조아 치과의원 대표원장, 소아치과 전문의